

<10월 인성교육>

영차 영차 힘을 합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서로 돕는다면 그 일은 그만큼 쉬어진다는 뜻이지요. 자녀에게 아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 협력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만든 다리

우르릉 광광!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며 세찬 비가 동물 마을에 하루 종일 내려 숲속 동물 마을과 이웃 마을을 이어주던 돌다리가 다 떠내려갔어요. 동물들은 걱정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난 오늘 바쁜데... 하지만 같이 다리를 만드는 게 좋겠어.

동물들은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천둥번개가 쳐도 비가와도 끄덕없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기로 입을 모았어요.



무거운 나무는 누가 들지?

동물들 :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들면 가벼울 거야



개울가로 어떻게 옮기지?

동물들 : 우리가 함께 옮기면 빨리 할 수 있을 거야

동물들은 힘을 합쳐 튼튼한 나무를 골라 개울가로 옮기고 나무와 나무를 엮어 튼튼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리 옆에 멋진 꽃말도 세워 두었지요. ‘마음과 힘을 하나로 모아 만든 다리’ 라고요.



이야기 해 보세요.

- 만약 동물들이 함께 다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 동물들이 협력해서 다리를 만들었어요. 협력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전주대정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